

<https://dx.doi.org/10.20880/kler.2025.60.3.5>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양육자 인식 및 요구 조사

권이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 - 2024S1A5B5A16018963)이며, 제8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5.4.19.)에서 발 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요약 및 제언

I. 서론

2010년 이후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3). 또한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타개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초기 문해력 발달 단계에서 시작된 교육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튜 효과에 의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양육자들이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 또한 교육 격차의 시작인 초기 문해력 교육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관련 설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6%에 달했으며, 그중 국어가 74.3%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3). 이러한 설문 결과는 양육자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들을 지원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이후의 사교육 문제, 교육 격차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강호수·남신동, 2020; 심재희, 2023; 정평강·김가영·정가희·김중훈, 2024; 조시정, 2023 등). 이처럼

사교육 문제와 교육 격차가 미취학 시기부터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나 주체들이 다양한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특성(천경록, 2021)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과 양육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해력 교육의 시작인 초기 문해력은 만 5-6세, 유아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주로 발달하며 ‘자모 체계의 원리, 음운 인식, 읽기 유창성, 어휘, 내용 이해’를 포함하고(이차숙, 2007),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한다(김영숙, 2017). 이 시기는 가정에서 아동의 개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아동 발달에 가정과 양육자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가족 문해력 교육과 외부의 양육자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 연구는 국내 상황에 맞는 가족 문해력과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초기 문해력이 완성되는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

2010년대 이후로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간 문해력 수준 격차 심화는 많은 교사와 연구자들의 과제가 되었다. 엄훈(2011)은 한국의 저학년 아동들이 해부호화 능력의 면에서 뚜렷한 발달을 보인다는 점과 아동들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그러한 개인차는 학년이 올라가도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유승아(2016)는 취학 전 학생들의 문해력이 취학 첫 학기 이야기

글쓰기 능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순영(2019)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적절한 읽기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는 쓰기 능력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등 저학년 시기는 취학 전에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 문해력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윤준채(2022)는 기초 읽기 능력의 개념에 대해 ‘초등 학교 2학년을 마칠 즈음 수준의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단어를 자동적으로 재인하고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읽기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윤준채(2022)는 기초 읽기에 기초적인 사실적 이해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사실적 이해에 대한 구체적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경화(2019)는 기초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기초적인 사실적 독해를 포함하였고, 이수진(2024)은 기초 문해력 교육의 제도적 강화 방안 연구에서 한글 해득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 한글 책임 교육을 비판하면서 기초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여 기초 학력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자들 간의 관점 차이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양육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면 이는 초등 저학년 교실의 문해력 격차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양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아동의 문해력 발달과 양육자 연구

양육자는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가정의 문식 환경이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 (김남희·정혜영, 2013; 백순미, 2014 등)은 가정의 물리적 문식 환경 구성만으로는 아동의 문해력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부모의 문해력 수준을 높이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양육자의 문해 활동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순영, 2021; 정혜승, 2014; Cubillos, 2023 등)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한계를 넘어 아동의 문해력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 양육자 자신이 문해력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 되는 것임에도 양육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자의 문해력 발달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이나 지도 방식에 대한 국내 연구들(김선남, 2018; 김현욱·이태상, 2015; 정혜승·오은하·김종윤, 2016)은 주로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연구들은 ‘양육자의 문해력 지도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연구를 통해 검증한 문해력 지도 방법’과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양육자의 직접적인 문해력 지도가 아동의 문해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 문해 환경(활동 포함)과 아동의 쓰기 능력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Adams et al.(2021)는 가정 문해 환경에 따라 2년 후 측정된 구어와 문어를 연결하는 쓰기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미 관련 경험(책 함께 읽기)과 문장 및 글 수준의 쓰기 수행 지표 간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양육자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쓰기 발달을 종단 연구한 이순영·유승아(2023)에서는 초등 첫해의 쓰기 능력만이 읽기 능력과 읽기 태도의 영향을 받고, 그 이후의 쓰기 능력 변화율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양육자나 비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자동으로 쓰기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를 기반으로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양육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 교육을 포함, 가족 모두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가족 문해력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다(Brown, Schell, Denton, & Knodel, 2019; Fikrat-Wevers, van Steensel, & Arends, 2021). 이 연구들은 가족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다각도로 증명되었지만,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리하면, 아동의 문해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문해력 관련 활동을 알고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외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문해력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기초 정보

연령	명(%)	아동 연령	명(%)	직업	명(%)
20대	5(1.7)	8(취학전)	65(21.7)	전업주부	134(44.7)
30대	117(39.0)	9(1학년)	58(19.3)	사무	78(26.0)
40대	173(57.7)	10(2학년)	100(33.3)	판매	31(10.3)
50대	1(0.3)	11(3학년)	45(15.0)	서비스	17(5.7)
60대	2(0.7)	12(4학년)	17(5.7)	교육관련	10(3.3)
기타	2(0.7)	13(5학년)	15(5.0)	기타	30(10.0)
지역	명(%)	학력	명(%)	관계	명(%)
대도시	187(62.3)	고졸이하	57(19.0)	모	290(96.7)
중소도시	96(32.0)	대졸	222(74.0)	부	8(2.7)
읍면지역	13(4.3)	대학원졸	21(7.0)	조부모	2(0.7)
기타	4(1.4)				
합계					300(100.0)

2025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양육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참여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를 통한 스노우볼 방식으로 모집하였다.¹⁾ 연구 대상 기초 정보는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25년 2월에 진행되었다. 2월에 진행한 이유는 2월이 각 학년을 모두 수료한 후의 정보를 얻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8세(3월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 이유는 취학 직전의 양육자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설문지는 ① 기초 정보(연령, 성별, 직업, 학력, 아동 학년 등), ② 한글 학습 시기 및 방법, ③ 입학 전 문해력 준비, ④ 문해력 관련 활동 지도의 어려움, ⑤ 가정에서 하는 문해력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해력에 대한 광의의 관점과 함께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한글학습, 유창성, 기초 독해와 쓰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세분화된 보기로 구성하여 설문 참여자들이 주어진 보기 선택하는 것으로 문해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초안 작성 후, 국어교육학 박사 2인, 초등학생 양육자(관련 전문가 아님) 1인에게 각 2회씩 자문을 요청하여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설문은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다. 응답 결과는 주로 기술 통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SPSS 18을 사용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진행하였다.

1) 스노우볼 표집의 한계로 인구 구성과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연구 결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고졸 이상의 비율과 대도시 거주자의 응답이 전체 인구 중 분포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연구의 특성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전업 주부 비율은 전체 인구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계청(2025)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막벌이 가구 비율은 총 가구수의 48.2%이며, 이 연구의 주요 연령대인 30-40대는 각각 52.6%, 58.9%이다.

IV. 연구 결과

1. 한글 지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글 지도’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과 실행 양상을 확인하였다.

양육자들은 아동(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한글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한 연령’과 ‘한글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연령’에 대한 문항에 〈표 2〉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2〉 한글 지도 시작 및 완료 시기

-
- 자녀에게 한글을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나요?
 - 자녀가 언제 한글을 다 배웠다(한글을 뗐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작	명	%	완료	명	%
4세 이하	57	19.0	4세 이하	19	6.3
5세	121	40.3	5세	17	5.7
6세	56	18.7	6세	54	18.0
7세	39	13.0	7세	79	26.3
8세(초1)	3	1.0	8세(초1)	71	23.7
가르친 적 없음	24	8.0	9세 이상	28	9.3

양육자들의 59.3%가 5세 이하부터 한글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4세 이하를 모두 4세로 치환해도 평균 5.3세에 한글 지도를 시작한 것이다. 입학 전인 7세에는 90%가 넘는 가정에서 한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글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9세로 나타났다(‘현재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은 제외

함). 가장 많은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9세 이상도 9.3%에 달했다.

다음〈표 3〉은 양육자의 한글 학습 완료 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다. 응답자 중 가장 높은 118명(39.3%)이 ‘혼자 책 읽기가 가능할 때’를 한글 학습 완료 시기로 보았다. 즉, 한글 학습을 초기 문해력의 전체와 동일시하여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쉬운 박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때(28.7%)’로 한글 학습 완료 기준에 대한 생각이 같은 세대 아이들을 양육함에도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한글 학습 완료 기준에 대한 인식

한글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	%
박침없는 글자를 읽고 쓸 때	66	22.0
쉬운 박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때	86	28.7
겸박침을 읽고 쓸 때	85	28.3
혼자 책 읽기가 가능할 때	118	39.3
받아쓰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69	23.0
맞춤법을 틀리지 않을 때	48	16.0

다음은 한글 지도를 할 때 활용한 방법과 어려움에 대한 문항이다. ‘어떤 방법으로 한글을 가르쳤나요?’에 대한 양육자의 응답으로, 발음 중심(자모 결합)과 의미 중심(통글자 암기) 방법을 모두 사용한 절충식 접근(42.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미 중심 방법(26.3%), 발음 중심 방법(22.3%)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는 양육자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다. 실제 사용한 교재를 조사했을 때도 한 명의 양육자가 다양한 교재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관련하여 양육자들에게 ‘한글 지도에 사용한 교재, 교구’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300명 중 63명이 응답하였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 명의 응답자가 두 개 이상을 기술한 경우가 많았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빈도에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교재들을 묶어 선택 이유와 함께 정리하였다.

가. 한글 전문 교재 : 아하 한글, 기적의 한글 학습, 한글의 나르샤 등

- 맘카페 공동구매로 선택, 저자의 강의 들은 후 선택 (10명)

나. 방문 인쇄 학습지 : 구몬, 한솔, 재능, 웅진 등 (14명)

- 직접 지도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

다. 디지털 매체 : 한글이 야호 등 동영상, 토도 한글(페드 학습), 윙크(페드 학습+방문)

- 아이 스스로 학습하므로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13명)

라. 기타 : 그림책 보며 자연스럽게 배움, 포켓몬, 티니핑 등 흥미 위주 교재 사용, 아소비 등 유아 공부방 교재, 낱말 카드, 자석 교구

- 아동의 흥미 고려하여 선택 (23명)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소위 입소문을 탄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아 출판사의 저자 특강 등에도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재를 사용하여 아동을 직접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양육자들은 방문 교사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음 <표 4>는 한글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다. 양육자들은 한글 지도 방법(35.0%), 교재(23.7%)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한글 지도에 대한 정보 과잉(22.3%)도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한글 지도의 어려움(중복응답)

한글을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명	%
몇 살부터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62	20.7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105	35.0
어떤 교재로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71	23.7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67	22.3
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41	13.7
한글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16	5.3
가르친 적 없음	28	9.3
기타	5	1.7

한글 지도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양육자들은 한글 지도를 5세가 넘었을 때 적극적으로 시작하여 7세에는 마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별로 한글 지도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한글 지도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상을 활용하거나 교육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학습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글 지도부터 학습지 방문교사를 통한 사교육이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양육자들이 느끼는 한글 지도의 어려움은 주위의 양육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을 지도하고 있기에 아이에게 맞는 교재와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한글 교육에 대한 혼란이 높아지는 미취학 시기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특별히 없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1) 취학 전, 후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먼저 ‘취학 전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하는 문해력 관련 활동’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였고,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5점 : 매우 필요함 - 1점 : 전혀 필요 없음)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양육자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즉 4점 이상의 활동은 ‘자기 이름 읽고 쓰기, 받침 없는 글자 읽고, 쓰기’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이 문항에서 제시한 모든 활동에 대한 응답이 3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제시된 활동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인 ‘혼자 읽고 중요 내용 이해하기’나 ‘자기 생각 쓰기’는 초등 2학년 이후에 숙달되기 시작하는 활동임에도 취학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갖추어야 할 문해력 수준이 초기 문해력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입학 전 준비해야 하는 문해력 활동에 대한 인식

	평균(5점 척도)	표준편차
자기 이름 읽기	4.58	.60
자기 이름 쓰기	4.50	.67
받침 없는 글자 읽기	4.22	.79
받침 없는 글자 쓰기	4.03	.91
간단한 받침 있는 글자 읽기	3.96	.95
간단한 받침 있는 글자 쓰기	3.90	.97
겹받침 등 복잡한 글자 읽기	3.61	.94

겹받침 등 복잡한 글자 쓰기	3.55	1.03
소리내어 유창하게 읽기	3.74	.95
혼자 글 읽고 중요 내용 이해하기	3.56	1.05
짧은 문장 쓰기	3.55	1.04
일기 쓰기	3.48	1.13
자기 생각 쓰기	3.37	1.08

현재 초등 저학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이 한글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육자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방향이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비판적으로 양육자들의 인식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동의 삶의 질을 더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양육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문해력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다음 〈표 6〉은 양육자 본인이 직접 수행한 취학 전 문해력 교육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6〉 취학 전에 실제 실행한 문해력 활동(중복 응답)

	명	%
양육자가 책 읽어주기	169	56.3
양육자가 문제집으로 지도	86	28.7
양육자가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숙제 도와주기	95	31.7
방문 교사 학습지(구몬, 재능 등)	95	31.7
국어 학원(독서, 논술 등)이나 방과후교실	15	5.0
개인 과외	8	2.7
지도하지 않음	15	5.0
기타 (독후 활동, 책 읽으며 이야기 나누기 등)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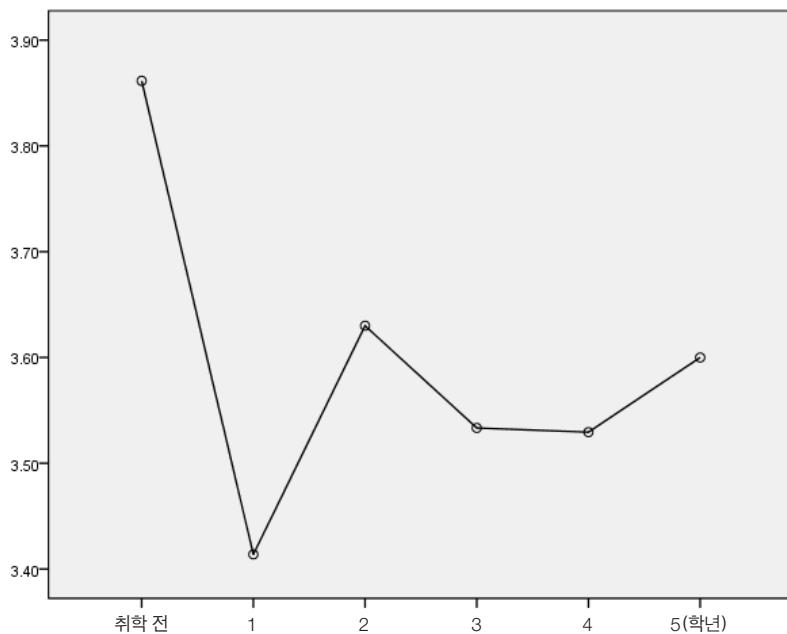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자가 책 읽어주기’ 활동의 비중이 56.3%로 가장 많은 양육자가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반대의 의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 북스타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에게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43.7%가 ‘미취학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가족 문해력 교육에서 양육자의 책 읽어주기만을 강조하는 방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시기임에도 문제집이나 방문 교사 학습지 등 교재를 활용한 문해력 교육의 비중이 각각 28.7%, 31.7%로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는 교육 방법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 <표 7>은 현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문해력 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빈도에 대해 5점 척도(5점 : 매우 자주 함 – 1점 : 전혀 안 함)로 평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7> 현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문해력 활동(빈도)

	평균(5점 척도)	표준편차
양육자가 책 읽어주기	3.59	1.22
문제집 풀이	3.62	1.13
학교(기관)숙제	3.60	1.07
글쓰기(학교 숙제 제외)	3.32	1.20
방문 교사 학습지	2.97	1.41
국어(독서, 논술)학원	2.72	1.45
방과후교실	2.69	1.33
개인 과외	2.45	1.36
함께 도서관 서점가기	3.37	1.18
가족 독서 시간	3.27	1.21

양육자들이 현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문해력 교육은 ‘문제집 풀이’, ‘학교 숙제’, ‘책 읽어주기’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분포가 초등 전학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제집 풀이’에 대한 응답을 각 학년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집 풀이 활동이 취학 전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가 1학년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문제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문제집 활용의 목적(한글지도, 독해 지도, 쓰기 지도 등)도 다양하므로 문제집 풀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입학 전 수치가 고학년 시기와 비교해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입학 전 양육자들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높은 불안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학년별 ‘문제집 풀이’ 활동 빈도(5점 척도)

다음 <표 8>은 초등 저학년 시기, 양육자가 가정에서 수행한 문해력 활동(9세 이상만 응답)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8> 초등 저학년 시기의 문해력 활동(빈도)

자녀가 1-2학년 때, 가정에서 어떤 문해력 활동을 하셨나요?

	평균(5점 척도)	표준편차
양육자가 책 읽어주기	3.75	1.02
문제집 풀이	3.63	1.04
학교(기관)숙제	3.56	1.03
글쓰기(학교 숙제 제외)	3.31	1.14
방문 교사 학습지	3.02	1.39
국어(독서, 논술)학원	2.73	1.39
방과후교실	2.72	1.34
개인 과외	2.49	1.31
함께 도서관 서점가기	3.33	1.14
가족 독서 시간	3.27	1.11

저학년 시기의 문해력 관련 활동은 책 읽어주기 활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문제집 풀이 활동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초등 저학년 시기 문해력 활동에 대한 기타 응답으로는 소리 내어 읽기, 자유 독서, 말놀이, 일기 쓰기 등이 있었다. 이 문항에서는 학력에 따라 세부 활동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9>는 활동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 양육자의 학력에 따른 초등 저학년 시기의 문해력 활동 양상(분산분석)

	학력	명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정 (Scheffe)
양육자가 책 읽어주기	고졸이하	57	3.25	1.37	4.309	.014*	고졸이하<대졸
	대졸	222	3.71	1.16			
	대학원졸	21	3.24	1.30			
문제집 풀이	고졸이하	57	3.35	1.23	2.356	.097	
	대졸	222	3.70	1.09			
	대학원졸	21	3.48	1.17			
학교 숙제	고졸이하	57	3.19	1.06	5.645	.004**	고졸이하<대졸
	대졸	222	3.71	1.04			
	대학원졸	21	3.48	1.17			
글쓰기 (학교 숙제 제외)	고졸이하	57	3.30	1.19	.645	.525	
	대졸	222	3.36	1.19			
	대학원졸	21	3.05	1.32			
방문 교사 학습지	고졸이하	57	3.12	1.32	6.721	.001**	대졸>대학원졸 고졸이하>대학원졸
	대졸	222	3.03	1.43			
	대학원졸	21	1.90	1.09			
국어 학원	고졸이하	57	3.07	1.19	5.093	.007*	고졸이하>대학원졸 대졸>대학원졸
	대졸	222	2.71	1.51			
	대학원졸	21	1.90	1.22			
방과후교실	고졸이하	57	2.84	1.18	4.719	.010*	고졸이하>대학원졸 대졸 >대학원졸
	대졸	222	2.73	1.37			
	대학원졸	21	1.86	1.06			
개인 과외	고졸이하	57	2.74	1.25	4.901	.008*	고졸이하>대학원졸 대졸 >대학원졸
	대졸	222	2.45	1.39			
	대학원졸	21	1.67	1.02			
함께 도서관 서점하기	고졸이하	57	3.07	1.22	2.316	.100	
	대졸	222	3.44	1.16			
	대학원졸	21	3.48	1.12			
가족 독서 시간	고졸이하	57	2.91	1.14	3.541	.030*	고졸이하 <대졸
	대졸	222	3.38	1.22			
	대학원졸	21	3.14	1.20			

‘양육자가 책 읽어주기’와 같은 양육자 부담이 높은 활동은 대졸, 고졸 이하, 대학원졸 순으로 나타났고, 사후 검정 결과 고졸과 대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방문 교사 학습지, 국어 학원’ 등 양육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 교사 학습지는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의 순이었고 사후 검정 결과, 고졸-대학원졸, 대졸-대학원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어 학원도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순으로 나타났고 고졸-대학원졸, 대졸-대학원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집 풀이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저학년 시기의 가족 문해력 교육에서 양육자의 주도성과 양육자 학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단편적 해석으로 그칠 수 있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기존의 독서교육 중심, 책 읽어주기 중심의 가족 문해력 지원의 방향에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양육자의 상황에 맞춘 문해력 지도 방법을 연구하여 적절한 외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주요 근거가 된다. 다만, 현재의 초등학교는 가정 교육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학교가 아닌 공적 영역의 지원 방법에 대해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문해력 교육의 어려움과 요구

다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력 관련 활동 지도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어려움에 대해 5점 척도(5점 : 매우 어려움 – 1점 : 매우 쉬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인 3점이 넘는 활동을 중심으로 〈표 10〉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자들의 어려움은 ‘겹받침 등 복잡한 글자 읽기’부터 시작되어 ‘유창성, 글 내용 이해’와 관련된 지도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양육자들은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기 지도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그 중 ‘자기 생각 쓰기’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표 10〉 문해력 교육의 어려움 정도

	평균(5점 척도)	표준편차
자기 이름 읽기	2.01	.94
자기 이름 쓰기	2.18	1.02
받침 없는 글자 읽기	2.43	1.05
받침 없는 글자 쓰기	2.55	1.08
간단한 받침 있는 글자 읽기	2.69	1.07
간단한 받침 있는 글자 쓰기	2.77	1.16
겹받침 등 복잡한 글자 읽기	3.22	1.14
겹받침 등 복잡한 글자 쓰기	3.25	1.13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기	3.05	1.28
혼자 글 읽고 중요 내용 이해하기	3.17	1.20
짧은 문장 쓰기	3.17	1.19
일기 쓰기	3.26	1.21
자기 생각 쓰기	3.31	1.26

〈표 11〉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한정하여 문해력 교육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양육자들은 문해력 지도의 어려움으로 ‘문해력 교육 방법을 잘 모르겠음’,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걱정임’, ‘주변 학부모, 온라인으로 듣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움’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해력 교육 방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양육자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

-
- 2) 지금까지 살펴본 문해력 활동의 빈도와 어려움에 대한 5점 척도 문항들은 표준 편차가 1 점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문해력에 대한 큰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해석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표 11〉 초등 저학년 시기, 문해력 교육의 어려움

1~2학년 때, 가정에서 자녀의 문해력 지도를 하면서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명	%
문해력 교육 방법을 잘 모르겠음	111	37.0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걱정임	68	22.7
어른인 내가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낌	55	18.3
주변 학부모, 온라인으로 듣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움	61	20.3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음	4	1.3
기타(어려운 점 없음등)	6	2.0

〈표 12〉는 가정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지도하기 위해 받고 싶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양육자들은 받고 싶은 외부 지원으로 ‘문해력 교육 방법 워크숍, 코칭 프로그램 운영(소규모)’, ‘문해력 교육 방법 관련 전문가 강의 개설’, ‘가정에서 문해력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제공’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존의 연령별 추천 도서나 도서 발송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양육자들의 요구사항을 통해, 양육자 지원 방향이 문해력 교육 방법에 대하여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료 제공에 집중된다면 조금 더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2〉 양육자가 요구하는 외부 지원

가정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지도하기 위해 받고 싶은 ‘외부 지원’이 있나요?

지원받고 싶은 것(중복 응답)	명	%
문해력 교육 방법 관련 전문가 강의 개설(오프라인 강의)	105	35.0
문해력 교육 방법 워크숍, 코칭 프로그램 운영(소규모)	110	36.7

가정에서 문해력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제공(동영상, 교재 등)	105	35.0
문해력 전문 웹사이트 (동영상, 교재, 추천도서 등 모든 자료를 모은 곳)	62	20.7
자녀의 문해력 교육 관련 개별 진단 및 상담	60	20.0
양육자들끼리의 정보 교류 모임 연계	24	8.0
(양육자인 나를 위한) 성인 문해력 프로그램 (독서 모임, 쓰기 모임 등)	23	7.7
연령별 추천 도서 목록 제공	41	13.7
가정으로 추천 도서 보내주기(빌려주기)	33	11.0
기타 (아이들이 모여서 문해력 관련 활동이 가능한 공간 지원)	2	0.7

다음은 ‘문해력 관련 궁금증’에 대한 양육자들의 자유 응답을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문해력의 개념과 발달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응답 예시를 보면, 문해력의 범위(사자성어, 한자 교육에 대한 논의 포함), 문해력이 좋다는 것의 의미 등 문해력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 문해력에 포함되는 건 어디까지인가요?
- 문해력이 좋다는 건 글이나 대화가 막힘이 없다는 걸까요? 대화는 잘 되는데 글을 읽을 땐 내용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참 헛갈립니다.
- 사고력 문제나 국어 문제들이 꼭 그렇게 어려워야하나요? 이걸 초등 1학년 이 읽는다고?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 영유검진처럼 몇살까지 해야 한다는 발달적 이정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자성어, 한자를 꼭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달에 대한 반응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시기 발달 이정표와 같이 정리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시중 문해력 관련 교재들이 같

은 학년을 대상으로 함에도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는 간접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는데, 이는 결국 문해력 발달 관련 궁금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영국 National Literacy Trust의 가족 문해력 교육 포털인 Words for Life에서는 문해력 발달 과정에서 양육자가 쉽게 발달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핵심 연령별로 발달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같은 연령이라고 해도 언어 발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을 적극 도와야 하는 시기에는 쉬운 수준에서 문해력 발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교과서 등을 활용하되 양육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문해력 지도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예시를 보면, 양육자들이 ‘독서와 문해력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의 부재’ 호소가 주요 내용이다.

- 글만 읽어주는 게 다가 아닌 거 같은데 글에 숨겨진 뜻까지 알려주기에 부족한 엄마는 어떻게 해주면 같이 성장할까요?
- 문해력을 위해 지속적인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지 책 읽기 단계의 기준이 있는지 각 단계마다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는 언제 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글을 읽고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방법이 어려웠어요. 읽기뿐 아니라 쓰기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겠어요.
- 책은 좋아하고 꽤 읽지만 가끔 내용을 물어보면 설명을 잘 하지 못하거나 평소에 정확한 어휘보다는 대명사를 많이 쓰는 편이라 독서량과 문해력의 상관관계가 의심(?)스럽고 따로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하나 고민이 될때가 많음

평소 아동의 문해력 교육에 적극적인 양육자들은 단지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인 양육자들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었다.

세 번째는 정보 과잉과 심리적 어려움 관련 응답이었다. 예시를 보면, 정보가 너무 많지만 '양육자가 기본으로 숙지해야 할 것'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 통로가 없다는 점이 원인일 것이다.

-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도하기에는 메뉴얼과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으로 숙지해야 할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책 읽어주기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권 읽어주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ㅠ

책 읽어주기와 같은 쉬운 활동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소극적 양육자 집단이 현재 독서 중심의 양육자 지원 방법의 한계가 드러나는 양육자 집단이기도 하다. 앞으로 해당 집단의 특징을 고려한 가족 문해력 교육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생 양육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들은 대부분의 초기 문해력 활동을 취학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양육자들의 한글 교육 시작 시기와 현 교육과정

간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아동의 미취학 시기에도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넷째, 양육자들이 현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문해력 활동 중 가장 자주 한다고 응답한 활동은 ‘문제집 풀이’ 지도였다. 다섯째, 양육자들은 문해력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방법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령 전 및 학령기 학부모의 학교 준비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박하연·정혜린(2024)은 학령 전기 학부모들이 인지능력 영역에서 ‘독서를 통한 사고력 확장, 학업 기술 영역에서는 한글을 익혀 문해력을 키우는 것’을 핵심 과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한글 학습은 미취학 시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양육자들의 인식과 실행 양상이 드러나, 현재 초등 저학년 아동의 양육자들은 미취학 시기에 한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한글 교육에 대한 공공 영역의 양육자 지원은 취학 전후 어떤 시기에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양육자 인식과 학교의 한글책임교육, 아동 발달 관련 이론들을 두루 고려할 때, 양육자의 한글 교육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한글 교육의 적정 시기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 한글을 지도하고 싶지만 양질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양육자들이 시기와 관련 없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방식, 양육자의 어려움 해결에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소모적 논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한글을 직접 지도하고 싶어 하는 양육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영역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해력 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정보를 정선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초기 문해력에 대한 개념역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취학 전부터 문제집 풀이 활동을 문해력 관련 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문해력이라는 용어가 알려지면서, 유아 독해나 쓰기 문

제집이 유행하는 출판 시장의 흐름과 일치하는 응답 결과였다.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이 문제집 풀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취학 전후 문해력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찾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하여, 팬데믹 이후 유아기 문해력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연구를 수행한 서유현·임보령·김순환(2023)는 ‘구체적으로 유아기 문해력을 위하여 성취해야 할 기준, 읽기·쓰기·말하기·듣기에서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언어 교육 내용, 개인차를 고려한 놀이 중심의 언어 교육 방법,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문해력을 관찰·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발달에 대한 정보가 양육자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쉬운 문해력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자들이 검증된 문해력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자들의 가장 많은 요구 사항은 검증된 문해력 교육에 대한 정보였다. 현재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문해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검증된 방법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42개의 가족 문해력 프로그램을 메타 분석한 Fikrat-Wevers et al.(2021)에서도 증거 기반 가족 문해력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발달 영역과 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문해력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으며, 실험 연구나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것이 다양한 외부 변인 개입으로 인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유·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된 문해력 기능과 전략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

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통로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양육자들은 취학 준비를 위한 문해력 수준이나 문해력 발달 과정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의 존이나 학습형 교육의 이론 시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검증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분 완화가 가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가족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서 또는 문해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서 문해력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곳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며, 양육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이 구성된다(권이은, 2025).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검진 등을 통해서 언어 발달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기 하지만, 검진 대상에서 벗어난 후부터는 믿을만한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으나 ‘기초학력’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어감이 있어 자신의 아이를 평균 이상으로 키우는데 관심이 높은 현 시대의 양육자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양육자의 특성을 섭세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교육 내용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인 박하연·정혜린(2024)은 학령전기 학부모들이 ‘문해력에서 또래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시키기를 원하면서도, 단순한 노출 및 암기식 학습보다는 독서, 탐구활동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사고력 발달을 중시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제집 풀이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독서 활동을 실천한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 아니었다.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연구 참여자의 학력 분포(고졸 이하 양육자의 비율)였다. Brown et al.(2019)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코칭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시행하여 효과를 확인하였음에도, 바쁜 부모나 소리 내어 읽기가 자녀의 독서력 향상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는 가족 문해력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같은 교육 내용임에도 양육자의 상황이나 인식에 따라 실행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육자 지원 내용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양육자의 자기 보고식 설문 결과를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 활용에 유의가 필요하며, 가정 환경에 대한 비율 고려 없이 스노우볼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공적 자원을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가족 문해력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공적 지원이나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을 통한 양육자 지원과 가족 문해력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권이은, 2025). 앞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실증 연구가 누적된다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밝히고, 가족 문해력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양육자 연구와 양육자 지원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5.07.30. 투고되었으며, 2025.08.07. 심사가 시작되어 2025.09.0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호수·남신동(2020),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속, 학습격차의 확대 재생산: 경기도 학생·학부모 대상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46, 180 - 193.
- 권이은(2025), 「가족 문식성 프로그램 구성 방향 탐색: 초등 저학년 아동의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52, 39 - 69.
- 교육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교육부.
- 김남희·정혜영(2013), 「어머니의 문해 신념, 가정의 문해 환경, 유아의 문해 능력 간 인과적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13 - 133.
- 김선남(2018), 「부모의 독서지도 유형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4(1), 5 - 38.
- 김영숙(2017), 『(찬찬히 체계적·과학적으로 배우는) 읽기 & 쓰기 교육』, 서울: 학지사.
- 김현옥·이태상(2015), 「부모의 교육지원과 학생 독서량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109 - 123.
- 박하연·정혜린(2024), 「학령 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9(6), 389 - 414.
- 백순미(2014), 「가정독서환경과 자녀 독서 습관 사이의 관계 분석」, 『중등교육연구』, 62(1), 61 - 92.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3. 7. 10.),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검색일자 2025. 7. 30., 사이트주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ToyOntzOjEyOjIj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5662495&t=board&category=726p36918L>.
- 서유현·임보령·김순환(2023), 「팬데믹 이후 유아기 문해력에 대한 유아교사 인식 연구: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8(4), 5 - 31.
- 심재휘(2023), 「코로나19 전후 사교육 참여 격차 실태 분석: 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3(4), 185 - 212.
- 엄훈(201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발달 양상 연구: 해부호화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6, 191 - 217.
- 유승아(2016), 「취학 첫 학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글 쓰기 연구」, 『청람어문교육』 58, 89 - 117.
- 윤준채(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기초 읽기 능력의 계발 방향」, 『독서연구』 62, 9 - 33.
- 이경화(2019), 「기초 문해력과 읽기 부진 지도」, 『청람어문교육』 71, 223 - 245.
- 이수진(2024), 「기초문해력 교육의 제도적 강화 방안 연구: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73, 215 - 242.
- 이순영(2019),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초등 저학년생의 쓰기 능력 발달에 대한 종단 분석」, 『리터러시 연구』 10(5), 369 - 400.
- 이순영(2021), 「초등 자녀의 독서 실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양상 연구」, 『한국어문교육』

- 이순영·유승아(2023),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6년간의 설명글 쓰기 발달 분석」, 『한국어문교육』 42, 147-175.
- 이차숙(2007), 「초기 문식성 평가 방법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3(1), 169-195.
- 정평강·김가영·정가희·김중훈(2024), 「아동양육시설 초등학생들의 기초문해력 실태 조사」, 『교육문제연구』 91, 97-115.
- 정혜승(2014), 「초등학생 학부모의 문식성에 대한 인식과 문식 활동 및 자녀 지원 방식」, 『국어교육』 146, 275-309.
- 정혜승·오은하·김종윤(2016), 「부모의 읽기 태도 및 읽기 지원 방식과 초등학생 자녀의 읽기 태도 및 자발적 읽기의 관계」, 『독서연구』 40, 173-212.
- 조시정(2023), 「초·중·고등학생들의 월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 추이 분석: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4(1), 165-187.
- 통계청(2025), 맞벌이 가구 비율, 지표누리 e - 나라지표, 검색일자 2025. 9. 12., 사이트 주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 천경록(2021), 「기초문해력 관련 연구의 실태와 쟁점 탐구」, 『한국초등국어교육』 72, 257-287.
- Adams, A. M., Soto-Calvo, E., Francis, H. N., Patel, H., Hartley, C., Giofre, D., & Simmonds, F. R. (2021), Characteristics of the preschool home literacy environment which predict writing skills at school, *Reading and Writing* 34, 2203-2225.
- Brown, C. L., Schell, R., Denton, R., & Knodel, E. (2019), Family Literacy Coaching: Partnering with parents for reading success, *School Community Journal* 29(1), 63-86.
- Cubillos, M. (2023), A chip off the old block: do reading-motivated parents raise reading-motivated children?, *Reading Research Quarterly* 58(4), 668-684
- Fikrat-Wevers, S., van Steensel, R., & Arends, L. (2021), Effects of family literacy programs on the emergent literacy skills of children from low-SES families: A meta-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91(4), 577-613.
- National Literacy Trust, Words for Life, 검색일자 2025. 7. 30., 사이트 주소 <https://words-forlife.org.uk>.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양육자 인식 및 요구 조사

권이은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양육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들은 대부분의 초기 문해력 활동을 취학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양육자들의 한글 교육 시작 시기와 현 교육과정 간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아동의 미취학 시기에도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넷째, 양육자들이 현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문해력 활동 중 가장 자주 한다고 응답한 활동은 ‘문제집 풀이’ 지도였다. 다섯째, 양육자들은 문해력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방법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핵심어 양육자, 초등 저학년, 가족 문해력, 초기 문해력

ABSTRACT

A Survey on Caregivers'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Literacy Education for Low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won E 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300 caregivers lower elementary students regarding literacy education.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Most caregivers perceived that early literacy activities should be initiated before the students enter school. There was a discrepancy between the time at which caregivers preferred to begin Hangul instruction and the timeline set by the current curriculum. More than 40% of respondents reported not engaging in reading-aloud activities with their children during the preschool years. The most common home literacy activity was workbook exercises. Caregivers reported difficulties from limited understanding of literacy development and effective methods.

KEYWORDS Caregivers, Lower Elementary Students, Family Literacy, Early Literacy